+

'AI 교육 5년'…호남대 미래 인재 양성 산실 발돋움

'AI 특성화대' 목표 2020년부터 실시 최근 'X+AI 청춘 프로젝트' 전시회 개최 5개 테마 구성…창의적 성과물 선봬

호남대학교가 AI 전문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 돋움 하고 있다.

1일 호남대에 따르면 'AI 특성화대학' 도약을 목표로 2020년부터 전교생에게 AI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청춘 프로젝트 미래를 展하다'행사를 개최했다.

호남대 AI교양대학이 주최하고 대학혁신사 업단과 RISE사업단이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5년 동안 AI 교양교육을 통해 축적된 교육 성과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작물을 선보였다.

전시는 ▲4천여명의 학생과 418명의 수상자들 이 거둔 공모전 실적 등을 정리한 '빛-기록된 청

춘'▲블록 코딩에 기반한 AI 프로젝트 작품을 모 올해로 5주년을 맞은 호남대는 최근 'X+AI:202 은 '상상-상상을 코드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 터를 분석한 작품을 선보인 '연결-숫자속의 통찰' ▲3D 출력물을 전시한 '청춘-상상을 입체로' ▲태 블릿에 기반한 이터랙티브 전시공간 '미래-AI가 그린 우리의 내일' 등 5개 존(Zone) 으로 구성됐다.

또 학생과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AI 기술의 적용 방식과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 성과 확산의 장으로 꾸려졌다.

작품을 제작한 학생들은 개막식 이후 기획 의

도와 제작 과정, 활용된 AI 기술을 관람객들에 게 직접 설명했다.

박상철 총장은 "전교생에게 AI 교양교육 학 점 의무화를 시작한 지 5주년이라는 뜻깊은 이 정표를 맞은 가운데 호남대의 비전과 AI 중심도 시 광주의 미래 성장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대학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AI 교육 혁신의 표준을 세우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대가 5년 전부터 전교생 AI 교양교육을 의무 화했고, 6년 연속 AI 특성화 부문 국가서비스대 상을 차지하는 등 AI 교육에서 앞서가는 대학임 을 입증했다"며 "AI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통 해 앞으로도 AI 중심도시 광주를 이끌어가는 견 인차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남대는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가 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지난 2020년 첫 수상에 이 어 올해까지 6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특성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축사에서 "호 화부문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박선옥기자



市교육청-우즈베키스탄, 협력 강화 타슈켄트한국교육원 등과 업무협약 한국어 자료 기부·해외 체험 지원 등

광주시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과 교육 협력 을 강화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우즈 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타슈켄트시교육청 등 2개 기관과 '국제교육협 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시교육청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한국 어 및 한국문화 확산 협력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자료 교류 ▲기타 상호 협력 분야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타슈켄 트47번학교에한국어교육자료를 기부했다.

또타슈켄트시교육청과는 ▲학생·교사·학교간 국제교류활성화▲양교육기관의지속가능한발 전과협력체계구축▲광주학생우즈베키스탄해 외체험프로그램운영지원등을 협력한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관 계자와 면담을 갖고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우 즈베키스탄이주배경학생지원방안을논의했다.

율다셰바 이로다 타슈켄트시교육청 교육감 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타슈켄트가 교육 의 다리를 잇게 됐다"며 "두 도시의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성장의 폭을 넓히길 기 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복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아이들의 배움 이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 라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AI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동신엑스포 성료

동신대, 지속가능 지역 미래비전 공유 특강·미래신산업 체험 부스 운영 호응

동신대학교가 'AI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지·산·학이 참여한 동신엑스포 를 개최했다.

1일 동신대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열린 동신엑스포에는 이주희 총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 의회 의장,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

동신엑스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 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을 나누기 위해 동 신대 RISE사업단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재학 생뿐 아니라 지역민과 예비 신입생을 초청해 특 강·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대정도서관 1층 로비에서는 RISE사업단과 9 개 센터를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으며, 동강홀에



동신대는 최근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이주희 총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AI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 주제로 동신엑스포를 개최했다.

서는 ▲어드벤처디자인 및 캡스톤디자인 경진 대회 ▲공학교육혁신센터 캡스톤디자인경진 대회 ▲창업동아리경진대회 ▲지역바이오산 업 육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인성교육 강화 프로젝트 심포지엄 등 혁신 교육의 성과를 공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최현우 마술사의 '편견 을 넘어 꿈과 희망에 주문을 걸다'와 카이스트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출신 허성범 크리에이터의 '대체불가 인재로 살아남는 법' 등이 마련돼 학생들로부터 큰 인 기를 끌었다.

대정도서관 3층에 개설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나주대실마을 홍보관에서는 AI·SW코딩 자율주 행 RC체험장을 통해 AI와 에너지산업이 결합된 미래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다. 나래관 2층 신산업 체험부스 체험관에서는

▲3D프린팅-네임텍 제작 체험 ▲탄소중립 화 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키트 체 험이 진행됐다.

이주희 총장은 "지역기업이 성장하면 청년이 정주하고, 청년이 늘어나면 더 좋은 기업이 유 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를 길러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박선옥기자

道교육청 '지역 맞춤형 학교체육 활성화' 모색

최근 순천서 '체육나눔한마당' 개최 체육수업・운동부 등 현장 문제 공유 22개 시·군 특성 고려 과제 등 논의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체육 활성 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순천만생 태문화교육원에서 도내 초·중·고 체육담당교 사와 스포츠지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 남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나눔한마당'을

전남 체육교사 24명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이 연수 과정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의미를 더 했다. 현장지원단은 사전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 를 수렴해 주제를 선정하고 실질적인 나눔활동 을 주도했다.

현장지원단은 ▲체육수업 ▲학생생활지도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의미 있는 체육대회 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눔 활동을 이끌며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실제 문제

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참여 교원들의 호 응을 받았다.

또 22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나 는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눔활동'도 진행됐다.

지역별 체육교육의 특성을 공감하고 이해 하며 지역의 교육환경, 체육시설, 학교 규모 등 차이를 고려한 실천 과제들이 논의돼 '지 역 맞춤형 학교체육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

한마당 행사에서는 교육연극 '선생님이 좋아 서요'와 경북대학교 이규일 교수의 특강 '인공 지능(AI) 시대 학교체육의 역할과 과제'가 이 어져 교사들의 전문성과 미래교육 역량을 높이 는시간도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만족도 조사와 2026학년도 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

영암낭주중 체육교사는 "현장지원단 교사들 과 함께 실제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 하고 더 나은 체육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교사들이 직접 참여 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진정한 현장 중심 연수였다"며 "지역별 교육 환 경이 다양한 전남에서 지역 단위의 체육 정책 논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된 의견을 20 26학년도 학교체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박선옥기자



+